

# AI시대 눈빛 대화... 인간만의 존재 증명

### 이정은 개인전 '평범한 세계' 18일까지 돌담갤러리 평범하지 않은 세계 표현한 시·유화 융합 25점 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범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더욱이 인공지능(AD)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만의 존재 증명이 나서야 한다. 이정은 작가는 "당신은 내 눈빛을 읽습니다"라고 외친다. '눈빛'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봤다. 눈빛만으로 상대와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는 건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5일부터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

한 제주돌담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평범한 세계 Art & Poem' 첫 개인전을 통해 이정은 작가는 이같은 목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10여년 유화를 그려온 작가는 2022년 등단해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첫 시집 '평범한 세계'를 펴냈다. 시를 쓰면서 그림도 함께 그렸다. '평범한 세계'라고 외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세상을 시와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시와 유화라는 두 가지 장르를 융합한 작품 25점을 선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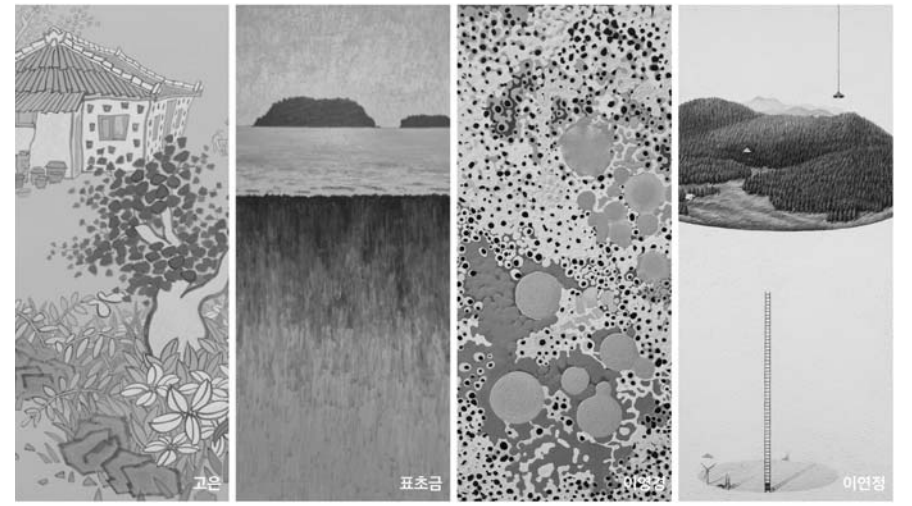
이정은의 '평범한 세계' (2020).

고 있다.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평범한 세계'는 제주의 배경을 소재로 강력한 색채를 입혀 평범하지 않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는 "바다의 섬 같기도 하고, 그 섬이 제주도의 느낌이 나는 주상절리, 그다음에 웅크리고 있고, 바닷속에서 세상위를 올려보는 듯한 제주의 강한 느낌을 내고 싶었다"고 했다.

전시 주제는 '당신은 내 눈빛을 읽습니다-AI시대, 인간만의 존재 증명'으로 정했다. 작가는 "평범하지 않은 이 시대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암시하고 싶었다"며 "관객들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침묵의 대화를 통해 잠시나마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4인 여성작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다

### 기획초대전 '기억의 궤적' 5월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 4인의 여성작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제주 자연의 경이로움과 삶의 흔적을 담아냈다. 제주국제평화센터가 마련한 기획초대전 '제주의 풍경과 생명: 기억의 궤적'이다.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제주의 풍경을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그 속에 깃든 생명과 기억, 공간의 의미를 담았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고은, 표초금, 이영경, 이연정 작가의 릴레이 전시로 이뤄진다. 고은 작가는 전통채색방식이 아닌 수묵 기법의 골법용필과 구름화법을 활용해 따뜻한 감성을 불러내는 작품들로 관람객의 마음에 위안을 전한다.

표초금 작가는 제주 자연에서 느낀 생명력과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작품들로, 구상과 추상을 결합해 새로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며 자연과 인간 내면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영경 작가는 제주의 숲에서 지의류가 가지는 생태적 중요성과 강한 생명력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며 생명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작품을 선보인다. 이연정 작가는 제주의 자연, 흐름을 주제로 그 형상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표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주 자연을 마주하며 삶의 흐름에 따라 비유하고 채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전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센터 측은 "제주를 기반으로 역량을 펼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의 평화롭고 따뜻한 작품 세계가 관객들에게도 공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 탐라국 실체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새롭게 쓴 탐라사' 발간



새롭게 쓴 탐라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 역사의 시발점이자 큰 줄기인 탐라국 실체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탐라 역사를 주제적으로 써 내려간 대중 역사 개설서 '새롭게 쓴 탐라사'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제기된 탐라국에 관한 많은 학술들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하고,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통해 탐라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어려운 이론·학설·용어 등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이창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가 총괄을 맡은 이 책은 '탐라'라는 대주제 아래 역사(고고·문헌)·민속(서사무가·신화), 유적 등 9개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독립 왕국, 탐라의 실체를 찾아서', '명칭으로 본 탐라사의 궤적', '건국 신화로 본 탐라국의 탄생', '물질문화로 본 탐라', '탐라의 국제관계와 외교', '탐라와 일본의 인적·물적 교류', '탐라 말기 탐라국의 활동과 고려와의 관계', '발굴 유적·유물로 본 탐라', '문헌으로 본 탐라 유적' 등이 수록됐다. 박진식 제주도 민속자연사博物

관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정신세계인 개척 정신과 공동체 의식의 뿌리는 곧 '탐라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이 책이 베일에 싸여 있는 탐라국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입문서인 동시에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재고시키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 200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누리집 학술자료실 게시판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전화 064-710-7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 8개 지역 문학회 "제주 문학 뿌리 찾자"

### 한국문인협회 특별위 출범 지역문학 정체성 연구 등

제주문학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 지역 문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문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5일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문학관

세미나실에서 발족한 '지역문화 특별위원회'는 도내 지역 문학단체와 협력해 도민과 문학단체가 함께하는 문학적 동행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구좌문학회, 대정현문학회, 서귀포문인협회, 성산문학회, 애월문학회, 제주한림문학회, 표선문학회, 한수풀문학회 등 지역 정체성을 지니고 활발한 활동

을 이어오고 있는 8개의 지역 문학회가 참여한다.

초대 특별위원장은 대정현문학회 강애심 회장이 선출됐다. 올해 지역 문학 행사 주관 단체로는 '애월문학회'가 선정됐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문학 정체성 연구, 지역 문학회 간 협력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문학활동 추진, 지역 문학 행사 기획·운영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 문학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 '논리는 나의 힘' 도민강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제주도민대학과 공동으로 최훈 교수를 초청해 '논리는 나의 힘'을 주제로 이달 24일부터 도민 강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강좌는 논리적 사고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언어는 왜 중요한가, 팩트체크와 논리체크 등 6차시로 이뤄진다. 강좌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민대학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박소정기자

## 이중섭미술관서 공예공방 도예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귀포공예미술관은 올해 상반기 공예공방 도예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예아카데미는 지역주민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층 공예공방에서 이뤄지며

도자공예 기초·장식기법 등을 배운다.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중급까지 총 4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shinglish88@korea.kr) 또는 현장접수로 가능하며 공개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최종 선발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또는 이중섭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관련 미술관 측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을 내 손으로 빚는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 씨니트요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카라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평 - 한라봉 2년

#### '씨니트'요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점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27 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010-3696-2057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한라봉	3~5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레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출소  
국제보청기프라자(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 삼육두유

###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맛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myuk www.sa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